

K-분자진단 기업, 국내 기반 다지고 해외시장 노린다

GC지놈, 생애 검사 포트폴리오 보유
지난해 일본 의료시장 첫 진출
HLB파나진, 제품 다변화 주력
분자진단 부문 매출 전체의 75%

유전자 진단 사업이 수의 구조를 안정화하며 해외 시장 공략과 중장기 사업 전략을 동시에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액체생검 및 임상유전체 분석 전문기업 GC지놈은 실적 반등을 성장 기반으로 해외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GC지놈은 지난해 별도기준 연간 실적으로 매출 315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순실 12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40억원으로 당기순실 13억원에서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6월 코스닥에 상장한 후 반년 만의 성과다.

GC지놈은 이러한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은 매출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사업인 암 검사, 산과 검사, 유전희귀 검사 등 전반이



베트남 하노이 소재 'GC&PHENIKAA 헬스케어 센터'. /GC녹십자

성장세를 보였다. 또 일본, 베트남, 중국 등으로 글로벌 시장 진입도 활발히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일본 의료 시장에서 처음 진출해 다중암 조기 진단검사 '아이캔서치'를 공식 선보였다. 아이캔서치는 혈액 10ml로 대장암, 폐암, 간암, 췌장암, 식도암, 난소암 등 6종의 암을 동시에 선별하는 기능을 갖췄다. 혈액에 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암세포 DNA 조각을 탐색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

즘으로 분석한다.

베트남에서도 AI 기반 정밀검진 모델을 확대한다. GC그룹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 'GC&페니카 헬스케어 센터'를 공식 개소했고 주요 암 14종과 30여 종의 생활습관질환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설치했다.

이와 관련 GC지놈은 고령암 환자의 유전적 진단 및 치료 예측에 활용하는 '그린플랜 고령암 검사', 산전 검사 '지니프트' 등 생애 전체 주기에 적용 가능

한 검사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베트남 헬스케어 시장에서 폭넓은 임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GC그룹 측은 "베트남의 정기 검진 확대 정책, 조기검진 수요 등 적극 공략 가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LB그룹의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HLB파나진은 제품 다변화에 주력하며 분자진단·현장진단·동반진단을 아우르는 플랫폼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HLB파나진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실적으로 별도기준 매출액 108억원, 영업이익 10억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 영업이익은 735% 커졌다.

분기별로는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핵심 사업은 분자진단 부문이다. 해당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수준인 가운데, 국내 최초로 폐암 환자의 ROS1 유전자 변이를 간편하게 검사하는 폐암용 제품 '온코텍터 ROS1 FD' 등이 판매 호조를 이뤄냈다.

HLB파나진은 최근 글로벌 바이오 기업 록진테크놀로지와 협력 계약을 체결해 록진의 현장진단 제품 라인업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다. 연구용 장비, 솔루션 등을 국내 연구기관,

병원, 진단검사실, 실험실 등에 공급하게 됐다.

이번 협약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분야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HLB파나진은 독자적인 인공핵산(PNA) 기술을 기반으로 암, 감염성 질환 등을 진단하는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왔다. 지난해 말에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진단 2종, 성매개감염균(STI) 진단 1종 등 감염질환 진단제품 총 3종에 대해 유럽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CE-IVDR)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면역진단, 조직 내 단백질 정보를 정밀 분석해 제공하는 공간단백제 분석 서비스 등으로 영역에서도 기업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근 HLB파나진 대표는 "록진과의 협력은 HLB파나진의 체외진단 플랫폼 사업을 한 단계 확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진단을 포함한 분자진단 제품 공급을 통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M 개발 등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IP 협업으로 고객 경험 확대

'망그러진 곰'과 올해 첫 협업
브랜드사 참여 문턱 낮춰

CJ올리브영이 오는 2월 한 달간 국내 캐릭터 '망그러진 곰'과 함께 올해 첫 협업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창작자 유랑 작가의 '망그러진 곰'은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일상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SNS 공식 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팔로워 수는 70만 명에 달한다.

이번 협업으로 21개 브랜드, 119종 상품에 망그러진 곰이 적용된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등 다양한 뷰티 제품 디자인에 활용되고 파우치, 동전 지갑, 키링 등도 선보여진다. 캐릭터의 세계관을 반영해 고객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마포에 위치한 트렌드팟 바이올리브영 흥대에



'올리브영X망그러진 곰'

'망그러진 곰의 특별한 꿈 속'을 주제로 한 팝업 공간도 꾸며진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인기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 기반의 협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캐릭터와 콘텐츠 경쟁

력을 도입해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동시에 올리브영이 직접 IP 협업 구조를 마련해 브랜드사의 참여 문턱은 낮추고 마케팅 효과는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정하 기자

삼바에피스, 염증성 장질환 심포지엄 개최

'에피즈텍' 최신 제형 공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4~25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염증성 장질환(IBD) 치료 분야의 최신 연구 및 임상 동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 'SYMBO L 2026'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 소화기내과 분야 의료진 약 70여 명이 참석해 환자 치료 및 관리 전략, 최신 가이드라인, 임상 사례 중심의 실제 적용 방안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활용 가능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성분명: 우스테키누맙)'도 소개했다.

에피즈텍은 면역반응 관련 신경 전달 물질 인터루킨(IL)-12 및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관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사용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24년 4월 국내 최초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에피즈텍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같은 해 7월 기존 스텔라라 대비 약 40% 낮은 약가로 출

시해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13일 국내에서 판매 중인 우스테키누맙 성분의 약품 중 최초로 '사전 충전 펜(PFP)' 형태의 애피즈텍을 추가 승인 받았다. 이는 기존 사전 충전 주사(PFS) 방식보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정진한 상무는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 대한 최신 연구·임상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앞으로도 현장 의료진과 꾸준한 학술 소통을 통해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W중외제약, 정보보호 국제표준 재인증

보안사고 예방·내부 프로세스 강화

JW중외제약은 최근 국제 공인인증 기관인 IGC인증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인증이다. 조직 상황, 리더십, 계획, 지원 등 정보보호 경영시스템 관련 요구 사항과 4개 영역, 93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3년 ISO 27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 이후 1년마다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의 유효성을 검증받았으며 지난해 2차 사후 심사

에서도 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JW중외제약은 보안사고 예방 및 내부 프로세스를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SO 27001 재인증을 계기로 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안 교육도 확대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정보보호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 이자 고객과의 핵심적인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고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용마로지스, 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 획득

내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 용마로지스는 오는 2027년 경기도 안성에 준공 예정인 '신허브물류센터'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스마트물류센터 예비인증 2등급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첨단, 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

창고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 전 설계도 등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예비인증과 준공 이후의 본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신허브물류센터는 기존 안성 1센터 대비 분류장 면적이 약 2배 이상 확대된다. 분류기 하차라인도 2배 이상 늘어난다. 물량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커지고 분류 속도는 1.5배 이상 향상돼 처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신허브물류센터는 이러한 규모 확대를 통해 최첨단 자동화 풀필먼트 서비스가 가능한 물류센터로 구현된다. 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입고, 보관, 포장, 배송, 재고 관리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정하 기자



용마로지스 신허브물류센터 조감도.

/동아쏘시오그룹